



2022 교회 표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사 65:17)

주일 예배 순서	오전 11시 인도 박현수 목사
*기 원	목 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이신 나의 하나님</li> <li>• 주의 이름 높이며</li> <li>•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li> </ul>
기 도	최의순 장로
성경봉독	이사야 36장1-24절
특별찬양	항상 진실케 -찬양대-
설 교	“듣는 귀를 구하십시오!” -박현수 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양	주님을 보게 하소서
*봉헌기도/축도	박현수 목사

\*표는 일어서서

헌금은 입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Youtube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 금요찬양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Youtube QT 방송: 화요일, 목요일

P C A  
한인중부노회

하이랜드교회

HIGHLAND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박현수 (Rev. Jason Hyunsoo Park, Pastor)

820 S. Milwaukee Ave. Vernon Hills, IL 60061 ☎(847) 634-6033

[www.highlandchurch.com](http://www.highlandchurch.com) (web) [highlandchurch1977@gmail.com](mailto:highlandchurch1977@gmail.com) (교회)

[parkhyunsoo@hotmail.com](mailto:parkhyunsoo@hotmail.com) (담임목사) [hellofromhighland.com](mailto:hellofromhighland.com) (EM Web)

◀ 웃습니다! ▶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생들 중에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지만, 중고등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은 모두 개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매스 슈팅 사건이 있었던 하이랜드 파크 지역의 부모들은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만 학교에 데려다 두려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저도 마음이 그러하니, 그 지역의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텍사스 유발디의 Robb 초등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학교에서 사건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총기 사건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 훈련은 교육청에서 법으로 정한 훈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 혹 자신의 아이가 참여하는 것이 싫으면 연락을 달라는 통지를 받았습시다. 우리 아이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훈련에 참가해야 하겠죠! 제가 어릴 때에도 '대피 훈련'이 있었습시다. 그런데 제가 했던 대피 훈련은 전쟁에 대비한 훈련이였습시다. 한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고 휴전 중이었기 때문에 '대피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습시다. 그런데 지금은 전시 상황이 아닌데도 '대피 훈련'을 해야 한다니, 그야말로 '웃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프다는 신조어입습시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전시 상황과 같은 것입습시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편안히 있을 수만은 없습시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시다. -박목-

◀ 광고 ▶

-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주일: 9/11 주일
- 협력기도: 권순조 권사, 김국태 집사
- 다음주 기도: 김태중 장로
- 위로: 남궁운자 집사 가정 (고 남궁재기 장로 별세 - 8/14(주))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 목사 박현수  
E.M 목사 홍정모(Abraham)  
교육전도사 신준식(James, 유초등부)  
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중  
성가지휘 강수경  
반주 한은정  
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

◀ 후원 선교사 ▶

MTW - 강충만  
캄보디아 - Nuth Sydeth  
NOVO(NK) - 서예레미야  
니카라과아 - 정영호  
REI - James Kang  
Global Hope - 조용중  
\*우리는 교인의 1%를 선교 보내는 1% 챌린지 교회입습시다!